

安 :편안하기 위해 全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

제48호 자랑스런 안전인 INISTEEL(인천공장) 김 현 석 대리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

우리나라는 조강생산이 연간 6000만 톤으로 세계 5위의 초일류 철강국가이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업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철은 건설, 기계, 자동차에서부터 일반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이기도 하다. 단단한 무쇠를 녹일 만큼 안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INISTEEL(인천공장)의 김현석 대리를 만났다.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현석 대리는 이제 서른 중반의 6년차 안전관리자이다. 대학에서 전공으로 안전공학, 부전공으로 화공안전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환경안전을 공부하였다. 어렸을 때 사고를 경험하면서부터 무의식중에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여느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INISTEEL 또한 수명이 다한 철스크랩(고철)을 전기아크로 용해시켜 형강이나 철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내 분진과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작업환경만 큼이나 작업장내 잠재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장에 완벽한 집진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4년 전부터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 지금은 현장에 정착되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이란 과거의 안전관리가 상·하식 안전관리로써 피동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은 작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실천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작업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는 안전교육 외에는 없으며 매년 사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사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 사례들을 들어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다.

이러한 안전활동과 더불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 잠재해 있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서서히 변해가는 '우리회사'의 인식 전환을 지켜보며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그는 말한다. 젊은 패기로 INISTEEL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김현석 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존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예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끊이지 않는 열정을 쏟아놓는다. 지난 12월 장가를 간 새 신랑! 새롭게 출발한 그의 첫해 소망은 무재해 달성과 개인적으로는 '개띠' 아들을 낳는 것이라 한다. 올 연말에도 지금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임재근 기자 >